

종합

원효사 지구도 상가·음식점 이전 추진

광주시, 무등산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

국립공원지정후 집단시설지구 해제 자연환경 복원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기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광주시정 회의실에서 열린 '무등산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자연자원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회'에서는 여관과 상가, 토속음식점 등이 22곳의 상업·숙박시설과 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폐지가 제안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완료된 뒤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관리사무소·주차장·화장실 등은 단독시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효사 지구 내 탐방객안내소는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무등산 내 집단시설지구는 전체 53만4900㎡에서 원효사 지구 14만 3200㎡가 제외돼 중심사 지구 39만 1700㎡만 남게 된다. 용역팀은 계획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과 원앙 등 멸종위기 희귀동물의 서식환경과 빙하기 기후 지형보호를 위해 원효계곡의

생태와 경관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자연공원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무등산 일대 실태조사에서 중미리재 3500㎡는 물론 장불재, 신선봉, 서인봉 등 모두 8100㎡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돼 복구 및 복원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포장 도로와 151㎞에 달하는 탐방로의 노면침식으로 노력이 확대되면서 훼손면적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무등산 내 외래수종 정비와 옛 일주도로 자연환경 복원, 원효사 지구 내 공원관리사무소 이전,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 추진, 무등산권 관광자원 활용방안 등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조정과 용도지구 조정, 탐방객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계획 조정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인 삼 등 포유류 5목9과 15종,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등 종류 13목32과79종, 멸종위기종 2급인 뿔방울 등 양서류 2목6과12종, 멸종위기종 1급인 구렁이 등 파충류 2목6과14종, 곤충 13목91과602속772종, 어류 3목5과9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정동에 2차 창작예술교류센터 짓는다

시, 2014년까지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351억 들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이전부지에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가 들어선다. 이 부지는 5·18사적지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 2007년 국군광주병원이 합평으로 신축·이전 한 뒤 출입이 금지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광주시는 9일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이 교류센터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물론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75억4000만원 등 모두 350억8000만원을 투입, 옛 국군광주병원을 리모델링해 예술인들의 연습·창작·전시·체험 및 제작·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류센터 내에는 창작공간 151실 등이 들어서 공

연·미술·공예·디자인 등 예술인 200여명이 거주 및 상시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소유인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매입에는 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는 3년 무상사용 후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옛 국군광주병원은 지난 1964년 문을 열었으며 10만5595㎡의 부지에 21동의 건물이 산재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가 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15일부터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광주시 제공)

5월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광주시 추진위 일정 확정...포시민사회포럼도

UN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5·18 추모기간인 오는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9일 오후 재난상황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경서 초대 UN인권대사, 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를 갖고 포럼개회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와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사카이 등 세계 각국의 인권도시들의 인권증진 프로그램 실천 사례가 소개되고 UN인권교육훈련센터이행방향을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또 5월16일부터 2일 동안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아시아 시민사회단

체 활동가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도 함께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UN 인권관련 기구 관계자 10명과 세계 인권도시 대표단 20명, 국제인권NGO 15명, 하버드대 등 세계 5개 대학 인권교육센터 관계자 5명 등 해외인사 50명이, 국내에서는 중앙인사 20명과 지역인사 30명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포럼 개최 후 하반기 외교통상부를 거쳐 UN사무국에 UN인권도시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서 전 대사는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와 정신을 전세계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재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견들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객센터 상담사

오늘 채용박람회

광주여성발전센터

고객센터 상담사 합동채용박람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여성발전센터 3층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SK텔레콤, 라이나생명 등 광주시 고객센터 14개 업체가 참여해 총 3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람회에서는 광주콜 고객센터의 현황과 주요업무, 직업의 비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SK브로드밴드 광주 고객센터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서 전 대사는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와 정신을 전세계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재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견들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재 고객센터는 국내 3300여개 업체에서 4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주에는 38개사의 49개 고객센터에 7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선정

전남 관광 인프라 구축 '청신호'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2489.4km², 전남 1037km²)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며 전남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를 열고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유산 11건과 잠정목록 등재 예정 유산 2건을 대상으로 우선 등재 추진 지역을 논의한 결과, 자연유산 부문에서 서남해안 갯벌을 선정했다. 또, 문화유산 부문에서는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와 남한산성 등 2건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으로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 보존·관리 현황, 국내외 비교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향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이 목록에 등재된 유산만 세계유산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서남해안 갯벌은 여주만(순천만·보성·별교 갯벌), 합해만(무안 갯벌), 곰소만(전북 고창·부안)

의 만일형(황처럼 휘어 오목한 갯벌)과 신안 다도해 지역의 섬갯벌로 이뤄졌으며 만일형 갯벌에서 개방형 갯벌로 이어지는 대조차(만조와 간조시 조수 높낮이 차이)가 큰 게 특징이다. 익산역사 유적지구는 삼국시대에 금강을 통한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7세기 초반 백제 무왕대의 왕도로써 백제의 중심이 필요로써 고대 백제시대 공성과 국가 사찰, 왕릉, 산성 등 고대 수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들에 대해 향후 2~3년 내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마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등재 신청서 작성에 보통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 이번에 우선 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3건의 유산에 대해서는 등재 신청서 작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서남해안 갯벌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술조사, 국제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을 수립해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꾸밀 '어번폴리' 디자인 공개

오는 17일 '참여 건축가 시민보고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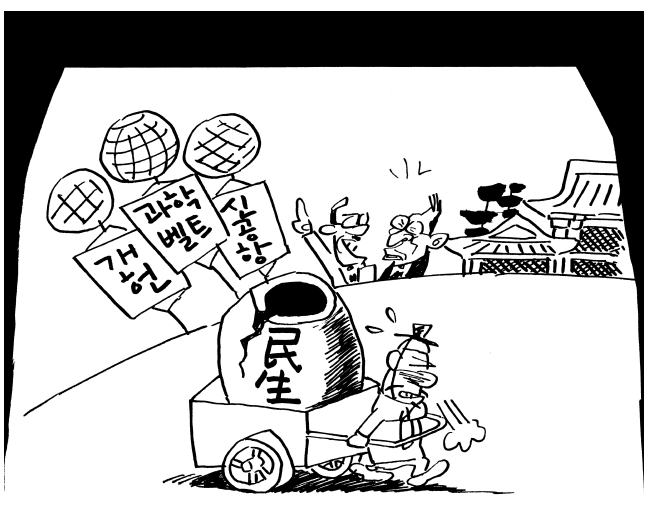
도미니크 페로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 10여명이 광주 도심 곳곳에 건축조형물을 세우는 '어번폴리'(Urban Folly)의 디자인안이 오는 17일 공개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번폴리의 '참여건축가 시민보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

월2일~10월29일) 기간에 추진되는 어번폴리는 건축가들이 도심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와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여 건축가들은 옛 광주 읍성터 부지 등 10곳의 어번폴리에 대한 개념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오영록기자 kroh@

빛日만평

- 김중두



民草는 깨진 항아리나 끌고...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 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펠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2011년 3월 11일(금)~2011년 12월 16일(금);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펠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